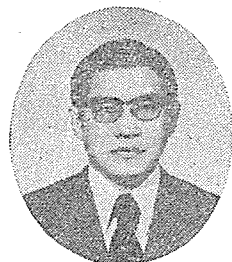


깊이 潛在하는 鑛床찾기 努力

國際적으로 認定받는 會誌發刊
有功學者에 雲巖地質學賞 褒賞制



鄭 昌 熙 會長

本學會 設立의 첫째 목적은 地質學의 研究發表이고 둘째 목적은 地質學의 普及이다.

첫째 목적을 달성기 위하여 本學會에서는 11년 전부터 地質會誌를 발간하여 今年으로 제11권을 헤아리게 되었다. 本會誌는 季刊으로서 매년 1~4號까지 4회 발간하여 1卷으로 삼는다. 1號의 부피는 60~100面이다. 제5권까지는 원고 모집에 고심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투고자가 漸增하여 차츰 좋은 論文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투고가 더 많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月刊을 생각하여야 할 때가 올 것으로 보인다.

會誌 발간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매년 과학기술처 會誌발간을 위해 내리는 보조금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특별會費와 학회원의 會費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今年에는 다행히도 産學協同財團에서 적극 보조하여 주어서 會誌발간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렇게 苦行을 하고 있는 것은 會誌를 순수과학적인 內容을 論文으로 채우려는 노력때문이다 客觀的이고 集約的이며 明白하고 참신한 內容을 갖춘 論文을 권장하고 있다.

會誌는 世界各國의 地質學 연구기관에 配布되고 있어 國際的인 인정을 받고 있다.

本會員中 大學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학자의 대부분은 國立地質鑛物研究所에서 遂行하고 있는 地質圖幅(1:50,000)에 協力하고 있으며 이

는 地域 地質研究에 큰 도움이 된다. 本會 목적에도 부응하는 행위이기도하며 이 概查的인 研究에서 會員들은 많은 地質學的 研究테마를 發見해 내고 있다.

地質學의 한 面에는 순수과학적 面외에 自然히 地下資源에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露出鑛床은 이미 거의 다 發見된 셈이므로 地質學的 原理를 應用하여 깊이 潛在하는 鑛床을 찾아 義務를 느낀다. 이 方面에 地質學者들의 餘力이 發揮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學會에서 微力이나마 會員들의 研究意欲을 돕기 위하여 少額이나마 연구조성비를 策定해 놓았다. 가능하면 조성비를 증액코져 한다.

學會에는 雲巖地質學賞이 있어서 地質學에 貢獻이 큰 學者에게 褒賞하고 있다. 이는 순수한 地質學에 獻身하는 學者에게 주어지는 最高賞이다. 또 學會에는 地質學會賞이 있어서 좋은 論文을 쓴 學者를 칭송하게 되어 있다.

둘째 목적인 地質學 普及을 위하여 本學會에서 매년 秋季에 一般을 위한 趣味本位의 강연회를 열고 있다. 이것으로 조금씩 이라도 一般에게 地質學的인 思考方式 즉 낀 시간중에 일어나는 변화가 누적되어 큰 變化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다. 地球의 역사를 알게 하고 그 역사가 또한 人生에도 무엇인가를 줄수 있음을 우리도 알고 모두들에게 알리게 하고 싶은 것이다.

— 접수順 —